



주안복지재단 제66회 UN NGO 컨퍼런스에 가다

주안복지재단이 5월 30일(월)부터 6월 1일(수)까지 3일간 제66차 유엔 NGO컨퍼런스에 참가 하였습니다.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의 경주에서 열린 매우 특별한 행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 Educatio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협력과제 17개 중 4번째인 '양질의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컨퍼런스인데요, SDGs 채택 이후 열리는 첫 NGO컨퍼런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 하이코(HICO)에 도착하여 컨퍼런스 참가 등록을 한 후 개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이일하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김관용 경북지사, 경주시장 등 주요내빈의 연설과 축하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 외 많은 취재진의 취재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후 전시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안복지재단에서는 세계 복지 현장에 발걸음을 내딛는 유엔 NGO 컨퍼런스에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애녹재”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약 70여개의 NGO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 부스에 UN임직원, 세계 각국의 NGO 대표, 시민, 사회적 기업가들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NGO들 중 주안복지재단이 유일하게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한 NGO단체라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애녹재의 빵과 장미, 작은 자서전 쓰기, 지식 나눔 사업 등을 소개해드리니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또한 유엔한국협회 명예회장이자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인 박수길 박사님께서 저희 주안복지재단 부스에 방문해주셔서 주안복지재단과 애녹재의 노인사업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안복지재단과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애녹재가 부평에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안복지재단과 애녹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